



www.at.or.kr

홍콩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8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8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홍콩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4. 주류 (소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소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6. 소스류 (장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장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홍콩 달러의 경우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8월 28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143.38 원

1~8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홍콩



1. 김

2)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2. 음료류 (과채 주스)

2)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3. 면류 (라면)

2)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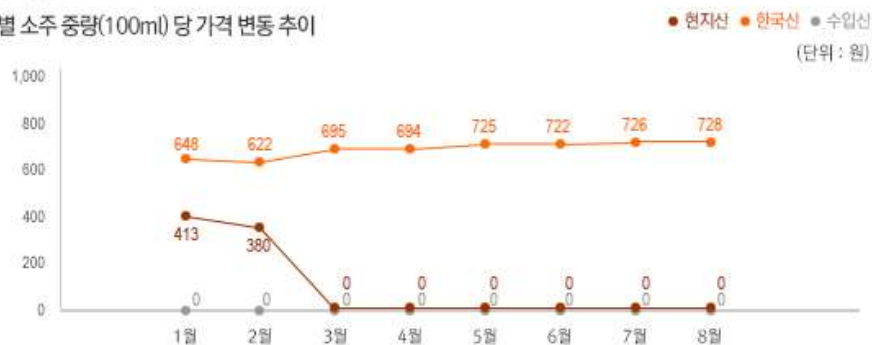
※ 홍콩 달러의 경우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8월 28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143.38 원

1~8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홍콩



4. 주류 (소주)

2) 원산지 별 소주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5. 제과류 (비스킷류)

2)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6. 소스류 (장류)

2) 원산지 별 장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 홍콩 달러의 경우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8월 28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143.38 원

신선식품

수요 증가 ▲ " 조리방법에 따라 선호하는 국가가 달라지는 소고기 "

홍콩에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 각종 육류를 판매하고 있는 Newkwokwah Meat의 담당자 Mr. Chen은 홍콩에서 소고기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홍콩의 경우 조리방법에 따라 선호하는 소고기 원산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샤브샤브용 고기의 경우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된 소고기를 선호하고, 굽거나 볶는 요리에는 한국산 소고기가 인기가 많다고 밝혔다. 그 외, 홍콩의 수입·유통업체인 Dah Chong Hong Holdings Limited의 담당자 Mr. Wang은 미국과 브라질산 소고기의 인기가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합리적인 품질과 가격 때문에 미국 소고기가 가장 선호되며, 브라질산 소고기는 미국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차선택으로 애용한다고 답변했다. 한국 소고기의 경우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높은 편이라 보통 고급 레스토랑 등에 주로 유통된다고 전했다.



[소고기]

가격 증가 ▲ " 물류비 상승으로 유럽산 오리발, 오리날개 소폭 오름세 "

1955년 설립되어 홍콩에서 냉동육류 및 해산물을 수입 및 유통하는 Glory Food International Ltd의 담당자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오리발 및 날개제품의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는 물류비용으로 인해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발과 날개만 수입하는 이유는 해당 부위 외의 오리제품은 중국 광둥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신선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 들여온 오리발과 날개는 고급레스토랑, 정육점으로만 유통을 하며, 조리법은 훈제 및 염장처리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오리고기]

수요 감소 ▼ " 명절특수의 영향을 받는 냉동갈치, 판매량 지속적으로 하락해 "

홍콩에서 해산물을 수입 및 유통하는 味鮮食品公司的 담당자 Ms Christy에 따르면, 냉동갈치의 경우, 명절 특수를 누리는 제품이라 판매량이 다소 떨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특히, 갈치는 칼로리가 높은 생선으로 알려져 주부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치 자체가 용을 연상하는 생선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조림이나 튀김으로 조리하여 섭취한다고 밝히며, 이에 반해 꾸준히 판매가 잘되는 제품은 냉동 새우와 조개라고 전했다.



[냉동 갈치]

음료

수요 감소 ▼ “ 더운 날씨에 손이 가지 않는 유제품, 프로모션 행사로 반등 노려 ”

홍콩에서 냉동만두, 음료, 두부 제품을 수입·생산·유통 중인 Condors Food Products Company Limited의 영업 담당자 Mr. Derrick은 날씨가 너무 더워 유제품의 판매량이 줄었다고 전했다. 작년 기준으로 날씨가 평균 32~33도 였으나, 올해는 34~36도로 날씨가 더워질수록 유제품이 상할 것을 염려한 소비자들의 구매빈도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하여 납품처인 편의점에서 매출급감을 우려하여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스낵류를 구매할 경우 두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촉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모션으로 재고처리 및 판매량을 다시 20%이상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당분간은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일정 판매량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유]